









#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 세차게 라오른다

##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장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장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고있다.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공사속도를 높여나가고있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막아서는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으로 파카히 뚫고나가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승리를 확신하며 연속공격전을 틀어대는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전투장마다에서는 련일 기적

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일 특約기자 박철 사진 본사기자 신충혁

### 조국의 전진속도에 보폭을 따라세우자

#### 평양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고있는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장에서 우리의 미더운 물길건설자들은 오늘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가.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결사관철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저수지연계공사장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평양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물길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이미 10월공사계획을 펼친

다들 생명이니. 우리모두 아침과 저녁,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비약하는 조국의 전진속도에 진군의 보폭을 따라세우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결사전을 벌립시다.》

그의 불같은 호소에 모든 일군들이 심장으로 호응해나갔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위훈창조의 앞장서서 련일같이 내달리려는 이들의 불같은 의지는 면밀하게 세운 일정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모두가 조국의 전진속도에 진군의 보폭을 따라세우기 위해 두목, 새목의 일감을 맡아안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위훈창조의 순간순간으로 이어나갔다.

운행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돌진기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도록 작전하고 지휘해나가고있는 우량철터단장이며 공사의 질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대중의 심장을 뚫어하는 화신적지사업이 공세적으로 벌어지고 모든 일군들이 돌격대원들의 앞장서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밀물이 되었다.

《결사관철은 우리 물길건설자

이 세차게 내세우고 집단적경쟁 열풍으로 저수지연계공사장이 또다시 끓었다.

중구역대대의 일군들이 계획된 성도파제를 11월중에 결속할 목표밑에 공격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도록 파카적인 작전을 펼치고있을 때 체재장을 작고한 순안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돌성산실적을 부쩍 올려 장석공사에 필요한 돌들을 원만히 보장해나갔다.

모두가 조국의 전진속도에 진군의 보폭을 따라세우기 위해 두목, 새목의 일감을 맡아안고

오늘날의 하루하루를 위훈창조의 순간순간으로 이어나갔다. 운행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돌진기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도록 작전하고 지휘해나가고있는 우량철터단장이며 공사의 질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대중의 심장을 뚫어하는 화신적지사업이 공세적으로 벌어지고 모든 일군들이 돌격대원들의 앞장서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밀물이 되었다.

《결사관철은 우리 물길건설자



### 과학적으로 세운 질보장대책

#### 건설건재공업성려단에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한 자신성에 넘쳐있는 건설건재공업성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기세를 올리며 맡겨진 공사과제수행에서 편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순간의 담보 없이 계속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쳐가는 이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련일공급이 공사의 질보장을 위해 보다 파카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실현해나가고 있는 사실이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에게는 천리마대교조의 높은 진군속도와 함께 천년책임, 만년보장과 같은 튼튼한 질적담보가 더없이 귀중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소식에 접한 이후 돌격대원들의 열의는 비상히 앙양되었다. 련일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그렇수록 련일공급은 마음의 신들매를 더 비박 조이고 속도와 함께 질보장을 사소한 편향이나 나가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들을 예견성있게 세워나갔다.

그중의 하나가 콘크리트복공사에 부과되는 혼합물의 배합비를 과학적으로 정하는 문제였다. 세련된 단 농도보다도 생산단위에 따라 그 질이 일정하게 차이를 나타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웠다.

김철원려단장과 김중근참모장을 비롯한 련일공급의 파카적인 작전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맡겨진 공사과제를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하루빨리 계속하기 위해 분발해나선 이들은

공크리트혼합물다짐작업의 질보장에도 상당한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돌진기계를 맡아 돌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주어 세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도록 만전을 지고 밤이 깊도록 뛰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내세우는 속에 련일의 전진속도를 높여나갔다. 금속건설사업소대대의 해수산업건설사업소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벽면처럼 생긴 도구로 휘돌려올려주는 방법으로 콘크리트결면의 기포와 폐인현상을 극대화하며 전파력을 계속 확대해나갔다.

건설건재공업성의 책임일군들도 맡겨진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해 헌신하는 돌격대원들을 물질상면으로 적극 도와나갔다.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련일의 공사실적은 아침과 저녁,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계속 올랐다.

오늘도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먼 후날에도 몇몇이 될지수 있는 창조물을 건설하기 위해 깨끗한 향신과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 현지

#### 보도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진속도를 대변위태로 이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랑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는 여기는 평안북도천안군의 주시대의 물길건설전투장에서

지금 여기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헌신한것이 펼쳐나선 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물길굴뚝기와 확장전투를 힘있게 다루고있다.

석수가 흐르는 막장에서 전투



###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척후병들

#### 회안 석탄 탐사대에서

일군들은 높아진 올해 탐사계획수행방도를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었다.

초급일군들의 열기면 협의회의에서는 시추증대와 탐사결정을 앞세우고 시추설비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올해의 전진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열의로 충만한 전체 종업원들이 일제히 새해 첫 탐사전투에 진입하였다.

중대장들이 김철원, 리한철, 한현천, 김길수, 김철호, 서팔일 등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치고 대외의

건이 몹시 불리하였다. 지하에 규모가 큰 작업장을 형성하고 시추설비를 가동시켜야 하는 이들의 탐사과제는 자연파의 엄혹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지대적 특성으로부터 지하의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고 암질조건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것은 시추대에 리용되는 금강시추관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것이였다. 시추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 추관을 남에게 의존해서는 해결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진 이상 이들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하나였다.

“주조된 자체의 힘으로!” 김대업기술자를 비롯한 탐사대의 오프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출진 앞장에 나섰다. 수십일간의 탐사활동과정에 쌓은 경험들이 환상되고 그 과정에 종전의 추관을 대신할수 있는 방도가 나지게 되었다.

### 팽화질석에 의한 나무모

#### 생산방법 도입, 성과 확대

각지 산림경영소들에서

산림경영소에서는 대중의 정신팀을 확보시켜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가는 팽화질석유영을 활성화함으로써 15만여그루의 상성기갈나무, 세일소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였다.

제평군산림경영소에서는 3대혁명조원들과 합심하여 이미 있던 팽화질석생산공정을 전기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생산량을 훨씬 늘일수 있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나무모를 기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정평, 문덕군산림경영소들에서는 모체양묘장을 기술적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 현지

#### 보도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진속도를 대변위태로 이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랑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는 여기는 평안북도천안군의 주시대의 물길건설전투장에서

지금 여기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헌신한것이 펼쳐나선 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물길굴뚝기와 확장전투를 힘있게 다루고있다.

석수가 흐르는 막장에서 전투



### 자강도려단에서

#### 대중속에 들어가는 방도가 나온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쫓아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없이 끌어들이고 그들의 정열을 무조건 끌어들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피하는 심장마타에 새겨진 자강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공사속도를 계속 높이며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이 성과는 변화되는 전진투쟁에 대처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도들을 대중의 목소리에서 찾고 즉시적인 대책을 따라내세워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는 련일공급의 진취적인 일꾼들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결진속도를 보장하면서 도 콘크리트복공사에 리용할 깁셀생선실적을 동시에 높일수 있게 한것이 그 한 실례이다.

사실 물길공사에서 제일 관심한 문제의 하나는 뜻밖의 사정으로 전역공급이 중단되는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굴안에서 작업이 중지되어 일정계획수행이 지장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조인이 좋아지기를 앞세우기 기다린다면 높은 새운 전투목표는 종이장우의 수자로만 남을수 있다.

대중의 창의적발상을 적극 발양시키는데 대한 당의 뜻은 빠른 속도로 새겨야 하는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도를 찾을것을 결심하고

즉시 회신시대로 나가 김희범 대대장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련단장은 한가지 해결책을 찾을수 있었다.

정전이 되는 즉시 착암기, 압축기 등의 설비들을 다룬던 돌격대원들은 기대정비를 하고 나머지력에는 깁셀을 생산하도록 한다면 전진속도 향상시킬수 있을수 있다라는것이였다.

이 경우 교대당 깁셀생산량은 적어도 절반 정도는 콘크리트복공사에 필요한 많은 깁셀을 해결할수 있었다. 더우기 굴안에서 깁셀을 생산하면 깁셀이 운반하던 버럭의 량을 그만큼 줄일수 있게 된다.

필요한 조치사업이 즉시에 전개되었으며 이것은 날로 높아가는 공사실적으로 이어졌다.

도의 책임일군들이 련일공급과 관련된 련계점에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시면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힘있게 뒷받침해주었다.

전공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발파효율을 높일수 있게 한 사실 역시 그렇다.

전진군대에 나가 작업의 열정에 착암공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련단장은 한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정대의 각도가 시작점에서 1°만 편차나도 마지막에는 기

### 팽화질석에 의한 나무모

#### 생산방법 도입, 성과 확대

각지 산림경영소들에서

산림경영소에서는 대중의 정신팀을 확보시켜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가는 팽화질석유영을 활성화함으로써 15만여그루의 상성기갈나무, 세일소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였다.

제평군산림경영소에서는 3대혁명조원들과 합심하여 이미 있던 팽화질석생산공정을 전기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생산량을 훨씬 늘일수 있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나무모를 기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정평, 문덕군산림경영소들에서는 모체양묘장을 기술적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기 빠르게 발파공들이 육박을 능숙하게 다져넣으며 발파준비를 서두른다.

대대장의 철수구멍에 따라 돌격대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긴장한 한초한초가 흐른다. 드디어 둔중한 발파소리가 굴안에 메아리친다.

발파정황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대대시공함모의 얼굴에 만족한 웃음이 한껏 일었다.

《편차 없음.》 대대장에게 하는 그의 힘찬 보고를 듣는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또 한차례의 발파를 성과적으로 해제한 궁지가 넘친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안고 새로운 공격전에 진입한 돌격대원들,

이들모두의 가슴마다에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어서라도 할 새운 전투목표를 기어오 수행할 불타는 의지가 활화산처럼 끓어번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전투장에는 굴함없는 공격정신, 결사관철의 기상이 세차게 나뉜다. 막장에는 예극의 뜨거운 열기가 확확 쏜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완공의 그날을 향하여 연속공격, 계속혁신해나가는 이들의 불같은 마음이면듯 착암기의 동음이 또다시 힘차게 울린다.

【조선중앙통신】











